

남원시, 중국 염성시와 협력 확대 임실군, 근로환경 개선 집중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강소-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행사 참석 위해 방문

남원시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강소-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행사 참석을 위해 5월 19일부터 염성시를 방문,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육 분야까지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관계 공무원, 남원시립농악단이 함께했으며, 중·한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30주년 기념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염원평 염성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교류성과를 담은 기록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양 도시는 이날 '교류 협력 심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례 상호 방문 체계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바이오·뷰티 등 경제 무역 교류 확대 △교육·문화·체육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남원시 김병중 화백의 '화홍산수' 판화와 염성시의 '배롱나무 서화'를 기념품으로 교환하며 문화적 유대를 다졌으며, 이어 남원시립농악단과 강소성 곡예단의 공연이 펼쳐



남원시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강소-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행사 참석을 위해 5월 19일부터 염성시를 방문,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육 분야까지 협력 확대에 나섰다.

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공연 교류는 상호 방문 형식으로 추진됐다. 염성시 공연단이 앞서 춘향제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남원시도 공연단의 염성시 방문을 추진하며 상호 문화교류와 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를 마련, 양 도시는 평이후 공연 내에 우정을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수하며 '100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방문단은 21일 상하이 화동 무인기 기지와 DJI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해 첨단기술 기반산업 동향과 미래 산업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명나라 전통 정원인 예원과 청년문화 중심지 우감부를 찾아 근대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활성화 사례를 확인하고 남원관광투어 및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정으로 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공약 표절 주장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가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의 '공약 표절' 주장에 대해 "시정의 기본 구조와 정당 정치 시스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경험 부족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구태 네거티브"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양충모 후보는 19일 본인의 SNS를



통해 상대 후보가 제기한 공약의 허구성을 날같이 짚어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양 후보는 강 후보가 표절 사례로 지목한 '남원문화재단 설립'과 '춘향제 100주년 관련 사업'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남원시의 공식 '계속 사업'이자 공당의 '정책 연대 결과물'임을 분명히 했다.

양 후보 캠프 측이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남원문화재단 설립'은 이미 2024년 3월 남원시의회에서 원안결된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중점 과제라

며, 양 후보의 공약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실정이지 표절이라고 밝혔다.

또한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역시 2022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남원시가 연차별로 추진해 온 중장기 계속 사업으로 확인됐으며, 남원의 초대형 이벤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당연한 책무를 두고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초보 행정가의 역지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본격 추진

순창군이 북동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해 북동면 추령·서지마을 일원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

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주요 내용은 하루 120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총연장 3.36km 하수관로 정비, 64가구 대상 배수설비 설치 등이다. 현재 사업은 도 원가심사 등 관련 행



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입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K-치즈·반려동물 등 지역특화산업 기업·소상공인 선정 지원

임실군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실 K-치즈·반려동물 등 지역특화 산업 및 소상공인 일하고 싶은 정착 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0만 원과 도비 5,6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산업인 K-치즈와 반려동물 산업 분야 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난 해소와 장기근속 여건 조성,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임실군 관내 사업체의 약 86%는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업체로 상당수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노후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 편의 및 복지 시설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임실군 로컬JOB센터(센터장 김중희)는 관내 특화 산업 기업 및 소상공인 5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임실군은 지역 핵심 전략 산업

인 K-치즈와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화장실과 휴게실, 샤워장 등 복지시설 개선은 물론 작업장 조명과 환기시설 등 근무 환경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여건에 따라 신청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참여문턱을 낮췄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5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대면 면접 없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로컬JOB센터 전담 매니저가 1대1로 배치돼 시설 개선 공정 관리부터 상생 간담회,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연계 등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실군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임실군 로컬JOB센터(063-642-929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임실군은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전북대학교, 임실군보건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지역 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총 17개 영역 168개 조사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가구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원 6명은 전북대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안부 전화로 전하는 화재안전 당부 홍보

순창소방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부 전화로 전하는 화재안전 당부'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층 단독주택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홍보의 취지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통해 일상적인 소통과 함께 화재 예방 수칙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있다. 최근 주택화재 사례를 보면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가 연기 흡입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무리한 진압보다 신속한 대피를 우선하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평소 전기·가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전북 1호 반려견 놀이터 이전·확장

남원시가 지난 2018년 전북도 최초로 조성해 지역 반려 가족의 사랑을 받아 온 '요천생대습지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이전·확장에 지난 4월 3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이전 개장은 '전북 1호 놀이 터'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동안 이용객들이 제기해 온 악취 및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요천생대습지공원의 자연경관 속에



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회 K드론남원시연합회 전국 드론레이싱대회 성료

남원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대학교 남원로컬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K드론남원시연합회 전국 드론레이싱대회'가 전국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K드론남원시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단위 드론레이싱대회로, 남원 관내 드론 관련 기업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해 FPV 드론레이싱 활성화와 지역 드론스포츠 기반 확대가

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남원 소재 FPV 드론레이싱 전문기업인 ㈜K DRONE SYSTEM(대표 박양호)이 자체 개발한 대회 운영 플랫폼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각지의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남원을 방문했으며, 지역 내 숙박·음식점 이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